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32/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다니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라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라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쪽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계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 수출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  
 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어졌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딸려 들어간다.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짝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 커녕  
 [A]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똬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체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  
 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욱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